

정유, 국제유가 고공행진 “타격”

재정부, 대외 불안요인에 물가불안까지 ... 자동차 소비도 우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이 급증했다고 평가하고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월6일 발표한 <2012년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주요 실물지표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개선됐지만 유가 상승 등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두바이(Dubai)유는 배럴당 평균가격이 2011년 12월 105.5달러에서 2012년 2월 116.2달러로 치솟는 등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가 줄어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자동차와 연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설비투자는 회복될 소지가 있지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부문 투자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선행지표 감소세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6>